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에 따른 우울 및 자녀의 학교준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Trajectories of Mo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d Children' School Readi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 7차년도(2014년)부터 10차년도(2017년)의 1,243명의 자료를 성장혼합모형분석, 다집단 성장 모형분석,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은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향, 상수준 무변화의 3개 잠재계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을 확인한 결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의 어머니는 5년 동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 4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4개 하위 요인 모두 저수준 저변화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은 대체로 저수준 저변화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이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취학 전 유아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in the changing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to explore its relationship with the changing patterns of mothers' depression, school readi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of their children five years after their birth. A total of 1,243 responses from the 1st (2008) to 5th (2012) and 7th (2014) to 10th (2017)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KCYPS)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ing (LGM) and Growth Mixture Analysis (GM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changing patterns in the mo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 groups were identified: low-low changing, average-uptrend, and high-unchanging group. Second, an increasing pattern of depression was found from mothers of high-unchanging group over five years. Third, school readiness for their children wa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atent classes. In particular, children from the low-low changing group showed higher readiness as well as self-esteem and happiness. Fourth, children from mothers of the low-low changing group showed high self-esteem and happiness in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o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 had an influence on themselves as well as their children's school related behaviors. Suggestions for an intervention program to resolve marital conflict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Marital Conflict, Depression, School Readiness, Self-Esteem, Happines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December 27, 2019

Accepted May 8, 2020

Revised January 21, 2020

Published Ma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부갈등은 자녀 발달 과정의 위험 요인이다[1]. 부부갈등은 다양한 연령 자녀의 심리적 특성, 문제행동, 학업 능력, 학교적응 등의 적응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2-5]. 부부갈등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 특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태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연구들이 주로 부부갈등과 관련된 횡단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부부갈등과 관련된 종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종단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궤적이 자녀의 발달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부부갈등의 변화궤적이 전체 집단 내에서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의 변화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변화 유형에 대한 이해는 변화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떤 변화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따라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우울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집단에 따라 유치원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 및 부모의 심리 및 양육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 안정성 가설(Emotional security hypothesis)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자녀의 정서 불안정성을 촉발하고, 정서 불안정성이 일상생활 속의 효과적인 대처,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궤적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6],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 수면문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9-1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다[13-15].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는 어머니 우울의 변화 궤적이 자녀의 친구 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16].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7-18].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 중 하나는 부부갈등이다[9-10]. 이는 결혼 생활 과정에 유발되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재인용].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특성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및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20-2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애착, 부모의 행복감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24-27]. 그러나 부모의 양육 특성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 중 하나인 부부갈등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및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을 중심으로 부부갈등의 특성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형을 탐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우울 간 관련성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접근을 한 것과 달리, 부부갈등의 변화 유형에 따라 우울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시기에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한다.
-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

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 7차년도(2014년)부터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자료이다[28].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결측치는 완전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까지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데이터가 모두 있는 1,24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0$, 2차 $\alpha=.90$, 3차 $\alpha=.91$, 4차 $\alpha=.92$, 5차 $\alpha=.92$ 로 확인되었다.

2.2.2 어머니의 우울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전혀 안 느낌(1점)~'항상 느낌(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90$, 2차 $\alpha=.91$, 3차 $\alpha=.91$, 4차 $\alpha=.91$, 5차 $\alpha=.92$ 로 확인되었다.

2.2.3 자녀의 학교준비도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의사소통 3문항, 사회 정서 발달 6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의사소통)',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사회 정서 발달)',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학습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의사소통 $\alpha=.85$, 사회 정서 발달 $\alpha=.7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alpha=.81$, 학습에 대한 태도 $\alpha=.86$ 으로 확인되었다.

2.2.4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수준 확인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2017년)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이)는 좋은 면이 많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alpha=.74$, 9차 $\alpha=.75$, 10차 $\alpha=.77$ 로 확인되었다.

2.2.5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의 전반적 행복감 수준 확인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2017년)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매우 행복해요(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머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alpha=.68$, 9차 $\alpha=.72$, 10차 $\alpha=.74$ 로 확인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로부터 데이터를 제공 받아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취학 전 유아 시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수집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준비도는 7차년도(2014년) 자료,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은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첫째,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기초한 잠재계층별 우울의 변화 양상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한 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29].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특징을 1차년도(2011년), 자녀의 특징을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은 10대 1명(.1%), 20대 400명(32.2%), 30대 822명(66.1%), 40대 20명(1.6%)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5명(.4%), 고졸 371명(29.8%), 전문대 졸(3년제 이하 기능대학) 363명(29.2%), 대학교 졸(4년제 이상) 434명(34.9%),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62명(5.0%), 무응답 8명(.6%)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637명(51.2%), 여아 606명(48.8%)이며, 월령은 만 72개월~79개월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43)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0	1	.1
	20-29	400	32.2
	30-39	822	66.1
	40-49	20	1.6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d	5	.4
	High school graduated	371	29.8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63	29.2
	University graduated	434	34.9
	Graduate school graduated	62	5.0
	No response	8	.6
Child's gender	Male	637	51.2
	Female	606	48.8
Child's age (months)	72.0	22	1.8
	73.0	131	10.5
	74.0	238	19.1
	75.0	334	26.9
	76.0	252	20.3
	77.0	111	8.9
	78.0	61	4.9
	79.0	11	.9
	No response	83	6.7

Table 2. Model fit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205.881***	13	.944	.957	.109 (.096-.123)	.046	2.052***		
Linear	14.980	10	.999	.999	.020 (.000-.040)	.020	1.972***	.039***	
Nonlinear	9.025	6	.999	.999	.020 (.000-.045)	.017	1.965***	.054***	-.004

* p<.05, ** p<.01, *** p<.001

3.2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해 Table 2와 같이 함수를 다르게 하여(무변화, 1차, 2차)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및 간명성을 고려했을 1차 함수(linear)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선형 성장모형인 1차 함수 모형에 기초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29]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과 5개인 모형은 추정 실패함).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은 평균 사후확률 또한 .896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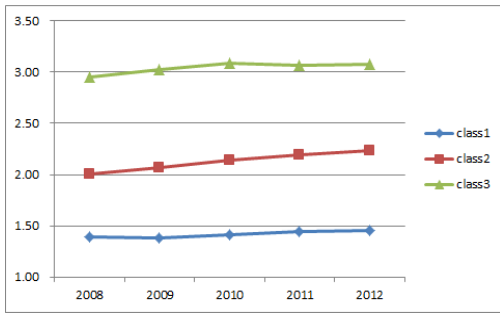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의 특징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1은 분석대상 중 434명(34.9%)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1.398(p<.001), 선형변화율 .020(p<.01)로 나타났다. 즉, 잠재계층1은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낮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작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수준 저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2는 분석대상 중 580명(46.7%)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016(p<.001), 선형변화율 .059(p<.001)로 나타났다. 잠재계층2는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중간 수준의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증가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중수준 상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3은 분석대상 중 229명(18.4%)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979(p<.001), 선형변화율 .030(p>.05)로 나타났다. 잠재계층3은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Fit Indices for 1- to 3-class growth mixture model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1	14136.901	14172.778	14150.543	N/A	N/A	N/A	100		
2	11821.505	11872.757	11840.993	.874	.0000	.0000	31.1	68.9	
3	11142.560	11209.189	11167.895	.804	.0219	.0000	34.9	18.4	46.7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Fig. 1. Profile plot of 3-class models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1.398***(.047)	.020**(.007)
2	2.016***(.062)	.059***(.011)
3	2.979***(.126)	.030(.026)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 p<.05, ** p<.01, *** p<.001

3.3 잠재계층별 우울의 종단적 변화 양상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별로 1차년도(2008년)부터 5차년도(2012년)의 우울 수준의 변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 우울의 평균값 초기치는 잠재계층 3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수준 무변화 집단, 증수준 상향 집단, 저수준 저변화 집단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년도의 우울의 변화양상은 상수준 무변화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수준 무변화 집단의 어머니는 5개년 동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Multiple group analysis

	Latent classes	Estimate	
		Intercept	Linear
Maternal depression	1	1.612***	.002
	2	1.976***	.013
	3	2.353***	.028*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 p<.05, ** p<.01, *** p<.001

3.4 잠재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교준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비교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학교준비도의 4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증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증수준 상향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2학년 시기와 3학년 시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2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3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증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행복감은 1학년 시기와 3학년 시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1학년, 3학년 시기 모두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행복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One-way ANOVA comparison of school readi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F	Tukey HSD
School readiness 2014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Class 1	402	3.54	.36	8.85***	2,3<1
		Class 2	534	3.46	.40		
		Class 3	206	3.42	.43		
	Approach to learning	Class 1	309	3.55	.38	10.80***	2,3<1
		Class 2	425	3.45	.42		
		Class 3	159	3.41	.42		
	Communication	Class 1	309	3.67	.43	8.53***	2<1
		Class 2	425	3.55	.49		
		Class 3	159	3.59	.50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Class 1	309	3.71	.37	9.79***	2,3<1	
	Class 2	425	3.60	.40			
	Class 3	159	3.59	.40			
Self-esteem	Self-esteem 2015	Class 1	398	3.48	.46	1.64	
		Class 2	522	3.44	.49		
		Class 3	203	3.41	.49		
	Self-esteem 2016	Class 1	384	3.51	.43	4.81**	3<1
		Class 2	505	3.44	.44		
		Class 3	193	3.39	.45		
	Self-esteem 2017	Class 1	375	3.54	.42	7.91***	2,3<1
		Class 2	493	3.45	.46		
		Class 3	191	3.39	.43		
Happiness	Happiness 2015	Class 1	398	3.28	.44	3.14*	3<1
		Class 2	522	3.24	.50		
		Class 3	203	3.18	.49		
	Happiness 2016	Class 1	384	3.35	.40	1.61	
		Class 2	505	3.32	.46		
		Class 3	193	3.28	.41		
	Happiness 2017	Class 1	375	3.37	.44	4.20*	3<1
		Class 2	493	3.31	.45		
		Class 3	191	3.27	.44		

* Class 1: low-low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uptrend group, Class 3: high-unchanging group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존재할 수 있는 변화 유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 우울의 변화 패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을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립적인 특징이 있는 세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 출생 시기인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낮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작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저수준 저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434명(34.9%)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 출생 시기인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중간 수준의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증가하는 패턴이 있어서 '중수준 상향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80명(46.7%)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1차 시점부터 5차 시점까지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며, 변화가 없어서 '상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229명(18.4%)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는 계층의 경우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부부갈등 수준의 변화가 없이 높은 갈등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을 의미하며, 갈등 대처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별로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우울의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 중수준 상향 집단, 저수준 저변화 집단 모두 평균값 초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중수준 상향 집

단, 저수준 저변화 집단의 어머니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반면, 상수준 무변화 집단은 5년 동안 어머니 우울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부부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9-10].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13-15, 30].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우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 집단에 대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와 같은 사회의 체계적 지원이 건강한 자녀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잠재계층에 따라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자녀 출생 후 7년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학교준비도의 4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의사소통은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1~3학년 시기 중 2학년과 3학년 시기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2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3학년 시기는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중수준 상향 집단과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행복감은 1~3학년 시기 중 1학년과 3학년 시기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1학년, 3학년 시기 모두 저수준 저변화 집단이 상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행복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관계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20-27],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또한 중단적으로 자녀의 학교준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은 건설적인 부부갈등과 손상적인 부부갈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손상적인 부부갈등에 초점을 두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건설적인 부부갈등을 활용한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중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상수준 무변화 집단을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상수준 무변화 집단이 어떤 부부갈등의 특징이 있는지 밝히지는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녀 출생 후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은 어떤 이유로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이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향, 상수준 무변화의 3개 잠재계층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향 집단과 달리 상수준 무변화 집단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자녀의 취학 전 유아 시기의 학교준비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변화 양상이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취학 전 유아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C. Porter, W. J. Dyer, "Does marital conflict predict infants' physiological regulation? A short-term prospective study", Vol.31, No.4, pp.475-484, 2017. DOI: <http://dx.doi.org/10.1037/fam0000295>
- [2] J. H. Park, J. S. Park,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s: Testing the mediating process of sibling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30, No.2, pp.1-18, 2017.
- [3] W. H. Kim, D. H. Lee,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 and self-control,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4, pp.1767-1782, 2010.

- DOI: <http://dx.doi.org/10.15703/kjc.11.4.201012.1767>
- [4] E. J. Song, J. Y. Lee,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s on youth depression-With the mediation of parentific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1, pp.335-354, 2010.
DOI: <http://dx.doi.org/10.15703/kjc.11.1.201003.335>
- [5] E. Vaez, R. Indran, A. Abdollahi, R. Juhari, M. Mansor, "How marital relations affect child behavior: Review of recent research",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Vol.10, pp.1-16, 2015.
DOI: <http://dx.doi.org/10.1080/17450128.2015.1112454>
- [6] P. D. Ki, "A developmental trajectory of marital conflict during the first five years after giving birth: Its effect on child's behaviors", *Family and Culture*, Vol.30, No.1, pp.27-57.
DOI: <http://dx.doi.org/10.21478/family.30.1.201803.002>
- [7] K. L. Coln, S. S. Jordan, S. H. Mercer, "A unified model exploring parenting practices as mediators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Vol.44, No.3, pp.419-429, 2013.
DOI: <http://dx.doi.org/10.1007/s10578-012-0336-8>
- [8] P. T. Davies, E. M. Cummings,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6, No.3, pp.387-411, 199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6.3.387>
- [9] S. A. Lim,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sympto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and their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17, pp.51-71, 2019.
- [10] Y. S. Kim, J. S. Park, Y. H. Kim,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depression on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5, No.1, pp.135-155, 2018.
- [11] J. N. Chung,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4, No.5, pp.101-115, 2018.
DOI: <https://doi.org/10.14698/ikcce.2018.14.05.101>
- [12] S. R. Park, B. R. No, H. J. Park, S. H. Yi,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 An analysis of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using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APIM)",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1, No.1, pp.51-79, 2017.
- [13] J. N. Chung, "Relations between mother's depression and their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6, No.4, pp.283-296, 2017.
DOI: <http://dx.doi.org/10.5934/kihe.2017.26.4.283>
- [14] H. J. Le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al negative emotionality",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Vol.31, No.2, pp.230-258, 2012.
- [15] S. H. Lee,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8, No.2, pp.117-127, 2018.
DOI: <http://dx.doi.org/10.21213/kjcec.2018.18.2.117>
- [16] J. M. Maruyama, M. Pastor-valero, I. S. Santos, T. N. Munhoz, F. C. Barros, A. M. Manitto,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trajectories on offspring socioemotional competences at age 11: 2004 Pelotas Birth Cohor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253, pp.8-17, 2019.
DOI: <https://doi.org/10.1016/j.jad.2019.03.072>
- [17] J. H. Sung, C. K. Kim,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on infant's anxiety/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2, No.1, pp.99-123, 2018.
DOI: <https://doi.org/10.5718/kcep.2018.12.1.99>
- [18] J. Y. Park, Y. H. Choi, R. R. Hwang, N. S.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the sociability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22, No.1, pp.1-19, 2019.
DOI: <https://doi.org/10.17641/KAPT.22.1.1>
- [19] H. M. Kim, E. S. Joo, "Moderating effects of focusing mann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depression of married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10, No.2, pp.53-68, 2018.
- [20] H. S. Park, "An study on the school readiness and related variabl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6, No.4, pp.137-157, 2012.
- [21] J. A. Lee, J. E. Park, H. M. Chung, S. H. Yi, "The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and scholastic competence: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4, pp.453-477, 2017.
DOI: <http://dx.doi.org/10.18023/kiece.2017.37.4.019>
- [22] J. W. Lee, I. K. Cho,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interaction on the school readiness of their childr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parenting",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23, No.1, pp.15-30, 2019.
DOI: <http://dx.doi.org/10.32821/JPT.23.1.2>
- [23] M. H. Min,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ources, parent-child interaction, academic skills, and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2, No.5, pp.1-19,

2017.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2-5-01>

[24] J. W. Kim, J. H. Kim,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s of upbringing,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children's self-esteem and career awarenes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4, No.1, pp.111-132, 2018.
DOI: <https://doi.org/10.29113/skpaer.2018.24.1.111>

[25] H. J. Kim, S. H.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6, No.1, pp.413-429, 2015.
DOI: <https://doi.org/10.20972/kjee.26.1.201503.413>

[26] D. G. Seong, C. K. Kim,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children's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s with 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bil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6, No.4, pp.129-142, 2015.
DOI: <https://doi.org/10.5723/KJCS.2015.36.4.129>

[27] A. R. Choi, Y.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life stress of children in respons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1, pp.337-351,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337>

[28] <http://panel.kicce.re.kr>

[29] S. H. Baek, H. W. Chung,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1, pp.151-182,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1.151>

[30] S. H. Goodman, M. H. Rouse, A. M. Connell, M. R. Broth, C. M. Hall, D. Heyward,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 Family Psychology Review*, Vol.14, No.1, pp.1-27, 2011.
DOI: <http://dx.doi.org/10.1007/s10567-010-0080-1>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